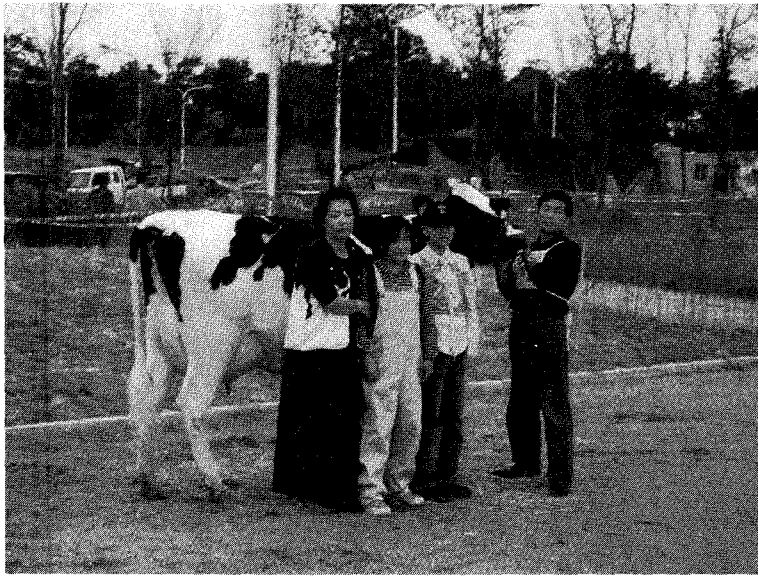


# 경매행사를 개최한 은아목장

〈취재 : 김윤식, 조우형〉



## 1. 축산을 시작하기까지

은아목장은 일반목장주와 달리 부인의 뜻에 의해 시작했다. 김상덕씨 부인인 조옥향씨는

결혼전 학창시절에 시골에 놀러와서 외양간의 암소가 김이 모락모락나는 쇠죽을 먹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좋았다한다. 이렇게 유별나게 시골을 사랑하고 동물을 좋아하는 조옥향씨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남편인 김상덕씨가

신혼초에 해외건설현장에 취업하고나서 더욱 축산에 대한 꿈이 간절하였고, 또한 친정아버지 소유의 산이 있었기에 그 꿈을 실현하게 되었다.

이 부부는 축산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없었기에 남들보다 고생을 많이 했지만 꾸준한 노력과 연구로 현재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목장으로 발전되었다.

## 2. 은아목장 현황

### 가. 연 혁

1983년도에 한우9두를 입식하여 대망의 축산업을 시작하였는데 그 시절 소값파동으로 겨울철 사료값과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생각을 달리하여 1984년도에 자금회전이 빠르다는 젓소를 키워보겠다고 초임만삭 3두를 구입하여 낙농을 시작하게 되었다.

현재는 경산우 48두, 육성우 39두, 거세비육 수소 30두를 사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고의 유질개선으로 미군납우유로 선정(1994년도)되기도 했으며, 국내에서 2개있는 VIP 농장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다.

### 나. 수상경력

은아목장의 부부는 한다면 하는 성실한 자세로 항상 각 전문분야별로 깊이있게 배우고, 연구하며 몸소 체험을 실천하므로써 낙농경영의 선구자적 역할을 다하는 목장이 되었다.

경력이 많지 않았던 부부가 젓소개량·사양관리·진료·유질개선 등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

로 하기에는 많은 고통이 떨어졌고, 주위농가들도 안쓰러운 표정으로 은아목장을 보았지만, 이제 그들의 노력은 주위농가의 부러움과 본보기가 되었다.

이러한 열정이 있기에 1991년에 경기도지사의 표창을 받았고, 1993년도이후 고능력평가 및 경매대회에서 10두이상이 입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5년도에는 은아목장 달진이가 챔피언에 당선되어 농수산부장관상을 받기도 하였다.

### 다. 검정성적

1991년도부터 본회에 산유능력검정을 받기 시작하였다. 1996년도까지 130여두를 검정하였으며, 평균 성년형 검정성적이 산유량 9,716kg, 유지량 363kg, 유지율 3.76%였고 '96년도 29두의 평균성적은 9,723kg, 유지율은 3.87%였다.

이러한 성적이 있기 까지는 본회 유우개량부 직원의 개량정보 제공은 물론이고 꾸준히 계획교배를 실시한데 있었다고 한다.

## 3. 경매개최

### 가. 행사취지

처음 젓소 사육을 시작할 무렵 소를 사러 여러목장을 방문했는데 그 애로 때문에 평소에 내가 사육한 좋은 암소를 나만큼 젓소를 사랑하는 이웃이 있다면 분양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최근 소값은 떨어졌지만 경산우 두수가 한계에 와 있으므로 초임우 10여두를 분양하기로 결심

했다.

앞으로는 지속적인 품종개량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사양관리로 단위당 생산량을 높이고 생산된 우유는 최고의 양질인 우유여만 높은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살 수 있고, 선발과 도태를 거듭하여 고능력 우군을 형성함으로써 종축목장으로 발전하여 종축분양으로도 고수익을 얻어야만 한다는 생각으로 규모는 적지만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한다.

#### 나. 개최일자 및 개최지

경매개최는 1997년 9월 9일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금당2리 산42번지 은아목장 축사앞에서 개최되었다.

참석자들로는 낙농경영협의회 회장 강성원 씨, 여주군부군수, 전국낙농가 및 관련업계종사자등 약250여명이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루

었다. 이렇게 대성황을 이룬데는 평소 열심히 일하는 부부를 보고 많은 업계의 후원과 협조가 있음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 다. 경매내역

초임우 10두를 경매하고자 하였으나 97년도 한국홀스타인 품평회에 참여하고자 1두를 제외한 9두를 경매에 붙였다. 소를 사고자하는 농가는 3명이었으나 아주 치열한 경합이 이루어졌다.

초임우 내정가격은 259만원~328만원으로 평균 283만원이었으나, 분양가격은 263만원~390만원으로 평균 316만원이었다. 출품번호 8번인 금지는 경매행사의 말대로 “금발에 미인”이라는 별명을 붙여 55회의 치열한 경쟁을 거쳐 예정가보다 95만원이 비싼 390만원에 낙찰되었다.

#### ● 경매 대상우 내역

번호	이름	생년월일	어 미 성 적		내정가격(만원)	경매가격(만원)
			성년형유량(kg)	유지율(%)		
1	지수	95.11.10	10,125	3.44	285	300
2	을순	95.11.16	10,057	3.04	273	290
4	화란	95.11. 1	12,079	3.13	304	335
5	미선	96. 3.10	10,195	4.54	287	311
6	오란	96. 3.20	10,282	4.19	265	276
7	순심	96. 3.26	11,731	3.28	259	263
8	금지	96. 3. 4	12,719	4.54	295	390
9	유순	95. 8.27	12,279	3.16	328	381
10	숙희	96. 1. 9	11,079	4.05	291	2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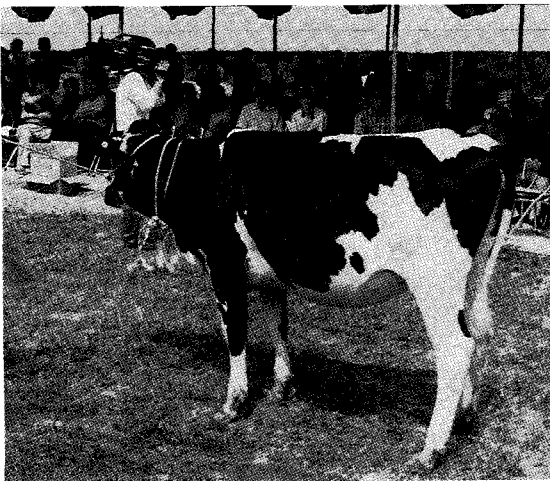
#### 4. 사진으로 본 경매행사 이모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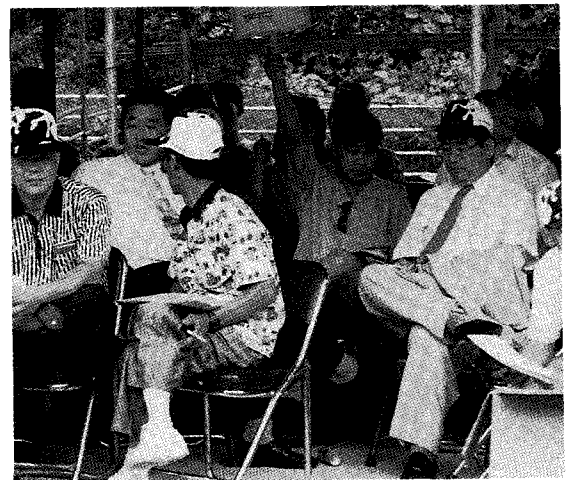
〈사진 1〉  
축주인 조옥향씨가 참석자에게 감사에 뜻을 전했으며 앞으로 소규모 농가라도 능력있는 소를 만들어서 분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사진 2〉  
낙농경영협의회 회장 강성원(성원목장, 성원우유대표)씨의 격려사. 대규모 목장에서든 용기가 없어 실시하지 못한 일을 은아목장에서 용기있게 개최함을 찬사함



〈사진 3〉  
경매에 참여한 농가 및 관계인이 약250명 경매 행사 관경을 지켜보고 있다. 행사진행에 천하제일사료 직원들의 협조가 있었다.



〈사진 4〉  
경매인 3명이 능력이 우수한 초임우를 좀더 많이 확보하기 위하여 열친 경합을 했다. 출품번호 5번은 15회, 8번은 55회, 9번은 14회에 걸친 경합끝에 가격이 결정되었다.